

가을 타는 남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다. 찬바람이 불면 괜히 옷깃을 세우고 낙엽 쌓인 거리를 걷고 싶어진다. 쓸쓸히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슬픈 사랑 노래가 유난히 가슴에 와 닿는다. “왜 사나?” 하는 출구 없는 질문을 던지며 고독 감에 빠지기도 한다. 과학적으로는 호르몬의 분비나 일조량의 변화로 남자가 가을 타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복잡한 심경을 딱 잘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한여름 같은 열정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는데 겨울처럼 냉혹한 현실을 준비해야하는 남자들은 가을에 생각이 많아진다.

인생의 가을쯤을 지나고 있는 중년의 남성들은 특히 더 그렇다. 앞만 보고 내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인생의 고개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가 중년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년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직장에서는 퇴출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말들이 어른거리고 문화가 서로 다른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산다. 집에서는 공부하기 바쁜 아이들과 대화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원치 않는 아랫배가 점점 나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노후준비는 아직 시작도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년의 남성들이 많다.

불안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아니 불안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불안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새로운 힘이 되고 이 에너지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종교적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기본대로 살던 사람이 언젠가는 인생무상을 느끼며 불안해하다가 윤리적으로 살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느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고백론 첫 장에서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수 있을 때까지는 불안하나이다”라고 했다. 결국 불안은 하느님 품안에서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늘 불안하다. 하지만 불안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하느님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하늘의 새들도 먹여주신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야 오죽 하겠는가. 이 가을 필요 없는 불안에 마음 쓰기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즐기는 건 어떨까. 풍요로움이 가득 찬 가을 들녘을 거닐며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주님이 내신 만물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스스로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탁은수 베드로 (부산문화방송 기자)

담쟁이처럼.

호계성당.김영환(로사리오)신부.

먼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앞 하나는 담쟁이 앞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소공동체는 무엇하는 곳인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소공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다.
소공동체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친 발걸음에 힘을 넣어 주고 늘어진 두 팔에 힘을 넣어 주기 위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이사야 35, 3

참조).
그러나 때로는 소공동체 모임이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치게 만들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의 벽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담쟁이 한 잎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바람에 날릴 수 있지만 함께 가는 담쟁이는 반드시 그 절벽의 담을 넘어 설 수 있다는 것을, 담쟁이는 함께 할 때야만 진정 그 푸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수시로 우리에게 도전 해 오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에너지일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넘어 설 수 있다는 것을.

위령 성월 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1월 1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40.00
교 무 금 : \$ 1430.00 182(40) 184(50) 188(20) 192(100) 194(20) 196(150) 198(80) 199(60) 202(50) 205(100) 207(20) 214(20) 219(100) 224(100) 226(500) 233(20)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 \$20 (\$4955.00)
합 계 : \$ 2270.00

본 당 소 식

◎ 11월 구역모임 안내

▷캠브리지구역 : 21일 (토) 6시 김흥식형제택
 ▷브랜포드구역 : 27일 (금) 7시 안정흠형제택
 ▷키치너 구역 : 21일 (토) 7시 교육관
 ▷워털루 3구역 : 20일 (금) 6:30 박영진형제택
 ▷워털루 4구역 : 14일 (토) 6시 김현태 형제택
**** 교우주소록양식 정정/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프레야 모임 안내

▷11월 22일(일) 주일 미사후
 ▷교육관

◎ 현충일 안내

오는 11일(수)은 현충일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올프레야 모임 안내

▷11월 20일(금) 오후 7시
 ▷교육관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관/소성당 사용시 반드시 본당 주차장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초 고춧가루 및 멸치 판매 안내

런던 성당 바자회에서 여분이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는 성모회 총무 한재희 자매에게 주문하세요 (☎519 884 1054)

◎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립기금 마련 행사에 참여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형제께 말씀해 주십시오. ☎519 279 4005 교환 1번

◎ 11월 안내 담당은 청소년부입니다.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사제관 관리 일정

▶워털루 4구역 11월

◎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 음악회 안내

일시 : 11월 13일 (금) 오후 7시 30분
 티켓 : 성인 \$ 10, 어린이 \$ 5
 문의 : 성가대 단장 문혜라 크리스티나

<빈 몸으로 가라> -정효모-

하얀 수의 곱게 차려 입었구나

머리에는 두건 쓰고

온몸에는 일곱 줄 동여 매고

동정도 없고

주머니도 없는 하얀 수의

손은 땀으나

아무 것도 없네

태어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 것 다 쥘 것 같은

그 울음소리 어디로 가고

눈가에 흘린 눈물 한 방울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서 챙겨 주시는 사랑을 안고

빈 몸으로 가라.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로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009-45호

2009. 11. 8.

연 중 제 32 주일

해설 김손권

차주 해설 김현태

성 가

입 당 (54) 주님은 나의 목자

봉 헌 (214) 주께 드리네

성 체 () Ave Maria -Caccini

퇴 장 (46) 사랑의 송가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독 서

11월 8일 이동기 이정숙

11월 15일 노재현 노정은

봉 헌

11월 8일 박재영 박경미

11월 15일 이동기 이정숙

복 사

11월 8일 류지흥 호 동

11월 15일 류지현 김건우

친 교

11월 8일 성모회와 워털루 1구역 협조

11월 15일 성모회와 워털루 2구역 협조

11월 22일 성모회와 워털루 3구역 협조